

#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 분석: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의 적용\*

장은아\*\* · 정혜원\*\*\*

## Ⅰ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는 주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이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타인과의 관계로 점차 확장된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사회적 관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세분화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유형으로 분류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함께 성인기 초입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관계는 전반적 수준이 높거나 낮은 유형, 시간에 따라 감소하거나 상승하는 동태적 유형, 특정 관계 수준이 높은 유형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개인·가정·학교 관련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은 성인기 초입에서도 도덕성,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관계가 취약하더라도 다문화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내재적 목표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가정과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타인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이 논문은 한국자료분석학회 2025 동계 학술논문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충남대학교 박사수료

\*\*\* 충남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chw7@cnu.ac.kr

투 고 일 / 2025. 12. 8.

심 사 일 / 2026. 2. 3.

심사완료일 / 2026. 2. 10.

## Ⅰ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교사·친구·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를 동시에 포함한 사회적 관계 발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이질적 변화유형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KELS2013) 3~8차년도(중1~고3) 자료( $n=5,317$ )에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을 적용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한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이 변화유형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변화유형에 따른 성인기 초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KELS2013 9차년도 자료의 도덕성, 시민의식 및 생애목표의식을 원격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변화에는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17.4%),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13.1%), 전반적 중수준 유지형(35.3%), 전반적 상승형(12.0%), 전반적 감소형(14.4%),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7.8%)의 6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통제변인에서는 성별이, 개인 변인에서는 자아개념, 규칙준수, 정신건강, 휴대전화 의존이, 가정 변인에서는 학업 지원 및 정서 지원이, 학교 변인에서는 공동체의식(참여의식, 타인배려, 협력학습) 및 교사 열의 등의 변인이 변화유형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 중수준 유지형, 고수준 유지형은 원격 결과변인에서도 각각 저, 중, 고수준의 경향을 보였으며,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의 경우 시민의식, 도덕성과 더불어 자기성장 등의 내재적 목표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결과변인에서 전반적 상승형 및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생애목표의식 중 물질적 부의 경우 전반적 감소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속적인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의 이질적인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사회적 관계,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 I. 서 론

청소년기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시기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 성장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차적 관계인 가정을 넘어 교사와 또래, 그리고 학교 밖 지역사회로 점차 확장되면서 자아와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성준, 김주일, 2015). 이때 사회적 관계는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영역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미시적인 수준의 근접 관계와 학교 및 지역사회 등 중간 수준의 관계 등으로 구분된다(Vonneilich, 2022).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는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이 일상에서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근접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며(김동진, 김태한, 2018; 박성준, 김주일, 2015), 점차 학교와 지역사회를 매개로 다양한 배경을 지니는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김나영, 손윤희, 2023; 조은영, 양명희, 2022; Byrd & Ahn, 2020; Hernández, Safa, Kornienko, Rogers & Ha, 2023).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범위가 학교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5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2025)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학생 수는 2014년 67,806명에서 2024년 193,814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세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이 다문화 이웃 및 다문화 친구와 관계를 맺는 경험 또한 점차 일상화되고 있다(조은영, 양명희, 2022). 이러한 사회적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실제 접촉 빈도가 높은 근접 관계에 한정하기보다, 문화적 차이를 지닌 타인과의 관계와 그에 대한 수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김나영, 손윤희, 2023; 조은영, 양명희, 2022).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은 가족과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맥락에서 다양한 배경을 갖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Byrd & Ahn, 2020), 동시에 또래관계를 통해 정체성이나 차별과 같은 주제에 대한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웃 및 친구관계 역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일부로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Hernández et al., 202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청소년이 주변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며(Bronfenbrenner & Morris, 2006), 그 범위를 부모, 교사, 친구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 이웃 및 친구와 맺는 상호작용을 사회적 관계로 포함하고자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점차 확장되는 만큼 관계에서 비롯되는 어려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22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 실적에 따르면, 대인관계가 약 150만건으로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친구관계 고민, 따돌림 및 왕따, 어른과의 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3). 그러나 원만한 사회적 관계는 정신건강과 시민의식 등 다방면의 발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유계환, 김대명, 2023; 장아영, 김순규, 이명홍, 박신애, 2025), 부모, 교사, 친구, 그리고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다방면적으로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려는 연구가 일부 시도되고 있다(김나영, 손윤희, 2023; 조은영, 양명희, 2022).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 관계 수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고, 중, 저수준의 집단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조은영, 양명희, 2022), 낮은 친구와의 관계성 집단(김나영, 손윤희, 2023) 등 특정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유형이 도출됨을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적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의 패턴에 따라 차별적인 개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상기 연구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점 각각의 자료를 사용하여 각 시기의 관계 유형을 비교하는 데 그치거나(조은영, 양명희, 2022), 초-중-고 간 전이 양상만을 분석함으로써(김나영, 손윤희, 202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변화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수의 종속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변화패턴을 유형화할 수 있는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GBMTM; Nagin, Jones, Passos & Tremblay, 2018)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개 시점에 걸쳐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를 아우르는 네 가지 사회적 관계 변인의 세분화된 변화유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 유형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결과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주로 청소년의 적응이나 성취, 정서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다루어 왔다(김경준, 이윤석, 2021; 장아영 외, 2025). 그러나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관계를 종속변인으로 접근하여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관련하여 자아개념, 규칙준수, 휴대전화 의존 등의 개인 요인과 더불어(김경숙, 2017; 김진희, 김준엽, 2021; 정현희, 장은애, 2021), 부모의 학업 지원과 정서 지원 등 가정 요인(변해원, 2017; 이미영, 2022), 공동체의식, 교사 특성 등의 학교 요인(김진희, 김준엽, 2022; 이의빈, 2022; 최연희, 구민정, 최문지, 김영미, 2018)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의 발달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인기에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조은영, 양명희, 2022). 즉,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주변인과의 친밀성에 그치지 않고 성인기 이후의 가치관과 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에 따른 성인기 초입의 결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경험은 도덕성(이윤희, 2021)과 시민의식(박수경, 양심영, 2017; 유계환, 김대명, 2023), 생애목표의식(김나영, 황혜영, 2022; 이의빈, 2022) 등과 같은 태도 및 행동, 가치 지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청소년기의 관계 경험이 성인기 이후의 장기적인 도덕적 성숙과 사회 참여, 가치 내면화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에 따라 성인기 초입인 20세에서 나타나는 도덕성,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의 수준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성인기 사회성 발달과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탐색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를 포함한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변화유형 분류에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구분된 집단별로 성인기 진입 이후 어떠한 결과 양상을 보이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부모 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로 구성하여 복수의 지표변인에 대한 변화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GBMTM을 적용하였다. 변화유형 분류 후 영향요인을 투입하여 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이 무엇인지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성인기 진입 이후 결과를 태도 및 행동(도덕성, 시민의식)과 지향(생애목표의식)으로 구분하여 원격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후 변화유형에 따른 원격 결과변인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기 다방면적인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균형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에 따른 초기 성인기 도덕성, 시민의식, 생애 목표의식의 수준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유형화

사회적 관계는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맺는 사회적 접촉의 양 또는 질과 더불어 개인 간, 공동체 등 관계가 형성되는 다양한 영역에 따라 그 특징이 구분된다(Vonneilich, 2022).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근접 맥락(proximal context)에서 인적, 물적, 상징적 요소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근접 과정(proximal processes)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김태한, 2017; Bronfenbrenner & Morris, 2006). 특히 청소년기는 1차적 관계인 가족을 넘어 학교, 또래, 지역사회 등 대인관계 대상이 급격하게 확장되는 시기로, 이러한 관계 경험을 통해 여러 사회적 기술과 가치관, 규범 등을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속한 근접 맥락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나영, 손윤희, 2023).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경험하는 1차적인 사회적 관계로 청소년의 전반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김동진, 김태한, 2018).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기 특성상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박성준, 김주일, 2015). 교사는 지식 전달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돕고, 친구는 모방과 공감, 또래집단의 문화 공유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점차 영향력이 커진다(김태한, 2017).

더불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는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며 이웃에 대한 신뢰나 상호호혜성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상호작용 또한 중요한 관계 요소로 포함된다(Vonneilich, 2022). 이러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계 형성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부모, 교사, 친구를 넘어 더욱 다양한 공동체와 다문화 환경으로 확장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최근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여성가족부, 2025),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 맥락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경험 또한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조은영, 양명희, 2022).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 흐름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가정과 학교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밖의 다문화 환경까지 아우르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포괄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김나영, 손윤희, 2023). 예컨대, 김나영과 손윤희(2023)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기반으로, 청소년기 사회

적 관계성을 가정 영역의 부모관계, 학교 영역의 교사 및 친구관계, 그리고 지역사회로 확장한 사회 영역의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로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조은영과 양명희(2022)는 외국인 및 다문화 친구관계가 포함된 다문화수용성이 부모, 교사, 친구와는 구별되는 사회적 관계 차원에 해당하며,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역량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Byrd와 Ahn(2020)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화 경험이 가족과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온라인 환경을 포함한 여러 맥락에서 동시에 형성되며, 이러한 맥락 간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안녕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족 정체성이나 차별, 불평등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역량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nández et al., 2023). 아울러, Karataş, Rubini, Prati, Schwartz and Crocetti(202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웃 및 또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시도도 이루어진 바 있다. 상술한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는 부모, 교사, 친구로 대표되는 근접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매개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타인과의 관계로 점차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청소년이 근접 맥락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상호작용으로 정의하며, 부모와 교사, 친구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 구성원, 즉 다문화 이웃 및 친구와 맺는 상호작용을 사회적 관계로 포함하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 요소가 존재함에 따라 각 관계 수준에 기반한 이질적인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조은영과 양명희(2022)는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자료에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시기 사회적 관계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사회적 관계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부모의 학업지원, 부모의 정서지원,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6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두 학교급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상, 중, 하위 수준을 보이는 집단 외에도 부모의 정서 혹은 학업 지원이 낮은 집단,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 등 6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김나영과 손윤희(2023)는 한국교육중단연구2013 자료에 잠재프로파일분석 및 잠재전이분석을 수행하여 초5, 중2와 고2 시기의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관계,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 4개 변인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 유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중2와 고2 시기에 공통적으로 ‘높은 사회적 관계성 집단’, ‘평균 수준의 사회적 관계성 집단’, ‘보통 수준의 사회적 관계성 집단’과 더불어, ‘낮은 친구와의 관계성 집단’의 4개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초5 시기에는 ‘낮은 교사와의 관계성 집단’이 별도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 수준에 따라 고, 중, 저수준 집단이 구분됨과 동시에, 특정 관계 수준이 두드러지게 높은 유형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다만, 조은영과 양명희(2022)의 연구는 사회적 관계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의 자료를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관계 잠재프로파일 양상을 비교하는 데 그쳤으며, 김나영과 손윤희(2023)의 경우 초5에서 중2, 중2에서 고2로의 잠재프로파일 전이를 분석하였으나 중등학교 재학시기에 걸친 사회적 관계 형성의 연속적인 양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1부터 고3까지의 6개 시점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의 변화유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사회적 관계 영향변인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적응이나 성취, 정서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자본 등의 독립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김경준, 이윤석, 2021; 장아영 외, 2025). 이러한 한편으로,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 각각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도 일부 시도되고 있다. 먼저 부모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광웅과 문수경(2005)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와 초, 중학생 자녀 간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학업적 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민미희(2025)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의사소통을 포함한 어머니와의 애착 정도가 낮아지는 부적 영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우울 정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와의 정서적 소통을 회피하게 되어 부모로부터 지각하는 지지가 감소하고 애착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경숙(2017)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교사관계 및 친구관계의 영향변인을 분석한 선행연구 중 김진희와 김준엽(2022)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교사-학생관계의 예측변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 자아존중감, 교사열의가 교사와 학생 간 관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은 교사-학생관계와 정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미영(2022)은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을 포함한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교사관계 및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면서 부모의 정서적인 지지가 성장기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친구관계의 경우,

딥러닝을 활용하여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주요 변인을 탐색한 변해원(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증상 및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자녀 대화 수준이 핵심 변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김진희와 김준엽(2021)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중1과 고1 시기 교우관계 예측변인을 분석한 결과,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상위 중요도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부모에 대한 애착은 친구관계와 정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정현희와 장은애(2021)의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규칙을 잘 준수하고자 하는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으로 포함되어 비교적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이의빈(2022)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5에서 중3까지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유형을 구분한 이문수와 박희진(2021)은 자아개념과 규칙준수, 부모의 학업적 지원이 잠재계층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최연희 외(2018)에서는 학교 규칙을 잘 준수하고, 공동체의식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 가정, 학교 관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요인에 자아개념, 규칙준수, 정신건강, 휴대전화 의존을 포함하였으며, 가정 요인으로는 부모의 학업 지원 및 정서 지원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요인으로는 공동체의식과 교사의 성취압력, 교사열의 등 교사 관련 특성을 투입하여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발달에 성별(김진희, 김준엽, 2021; 정현희, 장은애, 2021; 최연희 외, 2018)과 가구의 경제수준(김진희, 김준엽, 2021; 변해원, 2017)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에 대한 주요 요인의 영향력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하여 성별과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였다.

### 3. 사회적 관계와 도덕성,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 간 관계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이 성인기 초입인 20세 시점에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 가치 수준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 도덕성,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을 원격 결과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태도 영역의 도덕성은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고, 내면화된 가치에 따라 판단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를 말한다(정옥분, 2006). 이는 단순히 규범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 가치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옳고 그름을 성찰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포함한다(정옥분, 2006). 도덕성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화 주체인 부모 및 교사에 주목한 이윤희(2021)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청소년의 인성(도덕성, 사회성,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부모와 교사의 긍정적 역할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관계와 더불어 교사의 지도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공감, 도덕적 판단력 등을 내면화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행동 영역의 시민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회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과 행동을 말한다(손봉호, 조영달, 이승중, 김해성, 1999). 이러한 시민의식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사회화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유계환과 김대명(2023)은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양육한다고 인식할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시민의식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함은혜와 백선희(2016)의 연구에서는 학교 내 긍정적 교우관계가 시민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수경과 양심영(2017)은 다문화수용성이 협동, 도움주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청소년기의 다방면적인 사회적 관계 경험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협력적 행동을 내면화하게 하여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반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지향 영역의 생애목표의식은 개인이 삶의 전반에 걸쳐 성취하고자 하는 장기적 목표를 의미하며, 이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를 반영한다(Kasser & Ryan, 1996). 이와 같은 삶의 영역에는 물질적 부, 명예, 사회적 공헌, 인간관계, 가정생활, 자기 성장 등이 포함되며, 생애목표의식은 개인이 속한 환경적 맥락에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김나영, 황혜영, 2022). 이의빈(2022)은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교우관계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는 관계지향 삶의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태한(2017)은 친밀한 사회적 관계(교우관계, 교사관계,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를 지닌 청소년일수록 타인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이타적 목표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영과 황혜영(2022)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다문화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사회적 공헌이나 인간관계, 자기성장 등 내재목표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는 물질적 부 등 외재목표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여진(2025)은 부모로부터 느끼는 성취압력과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내재적 목표 집단보다는 외재적 목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이 성인기 초입의 도덕성,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발달이 이후 태도 및 행동, 가치 지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KELS2013) 자료를 사용하였다. KELS2013은 2013년 전국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층화군집무선추출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을 통해 표집한 패널자료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종단적으로 관찰하여 교육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분석으로 KELS2013 3~8차년도에 수집된 중1~고3 시점 자료와 더불어, 성인기 진입 이후에 해당하는 9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6개 시점 사회적 관계(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 문항에 모두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5,317명(남학생 2,568명, 여학생 2,749명)을 연구대상으로 활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KELS2013 자료에서 수집하는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측정문항 예시와 시점별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이 중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는 청소년이 부모, 교사,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지나 관심, 의사소통 등 직접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으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하는 개방성이거나 관계지향적 태도를 반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KELS2013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 유형을 분석한 김나영과 손윤희(2023)의 연구를 참조하여, 부모, 교사, 친구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웃 및 친구와의 관계를 포함한 네 가지 관계 변인을

사회적 관계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3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총 6개 시점에 걸쳐 측정된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 문항의 각 시점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종속변인 문항 예시 및 신뢰도

구분	변인	문항 예시	신뢰도
종속 변인	부모관계	‘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있게 물어 보신다’, ‘취미나 여가활동을 나와 함께 하신다’ 등 5문항	.862(3차) .863(4차)
			.861(5차) .853(6차)
	교사관계	‘나의 말을 잘 들어 주신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 등 6문항	.845(7차) .843(8차)
			.916(3차) .927(4차)
친구관계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에게 나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 등 6문항	.932(5차) .916(6차)	
		.920(7차) .923(8차)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피부색이나 겉모습이 다른 학생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등 6문항	.915(3차) .929(4차)	
		.930(5차) .921(6차)	
			.920(7차) .921(8차)
			.912(3차) .929(4차)
			.936(5차) .926(6차)
			.926(7차) .929(8차)

변화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는 3차년도의 개인(자아개념, 규칙준수, 정신건강, 휴대전화 의존), 가정(학업 지원, 정서 지원), 학교(공동체의식(참여의식, 타인배려, 협력 학습), 교사특성(교사 성취압력, 교사열의)) 관련 변인을 사용하였다. 정신건강 변인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일부 부정문항을 역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또한 통제변인으로는 성별과 월평균 가구소득 변인을 활용하였다.

아울러,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에 따른 성인기 진입 이후 결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9차년도에 수집된 도덕성과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물질적 부, 명예, 사회적 공헌, 인간관계, 가정 화목, 자기 성장)을 원격 결과변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변인 중 9차년도 시민의식(1: 전혀 중요하지 않다~5: 매우 중요하다)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독립변인 및 원격 결과변인 또한 하위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함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독립변인과 원격 결과변인에서 발생한 결측치 처리에 앞서 결측치 비중을 확인한 결과, 3차년도 독립변인의 결측 비율은 최대 4.7%(월평균 가구소득)로 나타났으며, 9차년도 원격 결과변인의 경우 모든 변인에서 약 7.9%의 결측치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변인 및 원격 결과변인에서의 결측치는 R 4.5.0의 mice(Ver, 3.18.0; van Buuren & Groothuis-Oudshoorn,

2011) 패키지를 사용하여 단일 대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한 변인의 구체적인 측정문항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독립변인 및 원격 결과변인 문항 예시 및 신뢰도

구분	변인	문항 예시	신뢰도	
통제 변인	성별	0=남학생, 1=여학생	.	
	월평균 가구소득	자연로그	.	
개인	자아개념	'나의 얼굴 생김새에 만족한다' 등 20문항	.929(3차)	
	규칙준수	'나는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등 5문항	.854(3차)	
	정신건강	'마음이 편하다' 등 9문항(부정문항 역코딩)	.907(3차)	
	휴대전화 의존	'휴대전화가 없으면 혼자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등 5문항	.892(3차)	
독립 변인	가정	학업 지원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신다' 등 6문항	.863(3차)
		정서 지원	'나를 격려하신다' 등 3문항	.924(3차)
학교	참여의식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등 4문항	.735(3차)	
	타인배려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등 4문항	.816(3차)	
	협력학습	'학교 공부가 뒤쳐진 친구들을 돕는다' 등 4문항	.766(3차)	
	교사 성취압력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싫어하신다' 등 5문항	.683(3차)	
	교사열의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등 4문항	.908(3차)	
원격 결과 변인	생애 목표 의식	도덕성	'나는 사회구성원으로 지켜야 하는 질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등 5문항	.891(9차)
		시민의식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10문항	.876(9차)
		물질적 부	'나는 재산이 나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등 4문항	.715(9차)
원격 결과 변인	생애 목표 의식	명예	'나는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등 4문항	.851(9차)
		사회적 공헌	'나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등 4문항	.808(9차)
		인간관계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등 4문항	.808(9차)
		가정 화목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매우 가치 있다' 등 4문항	.807(9차)
		자기 성장	'나는 삶 속에서 자기 성장을 잘 이루어낸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배우려고 노력한다' 등 4문항	.780(9차)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관계와 교사관계, 친구관계,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를 아우르는 네 가지 사회적 관계의 변화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GBMTM; Nagin et al., 2018)을 적용하였다. GBMTM은 단일 종속변인의 변화양상만을 반영하는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을 다변량 종단자료에 확장한 것으로, 복수의 지표변인의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집단을 식별하는 모형이다(Nagin et al., 2018). GBMTM은 전체 표본이 소수의 잠재집단이 생성한 분포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유한혼합모형(finite mixture modeling)의 형태를 취하며, 모수 추정은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해 수행된다. GBMTM에서 개인  $i$ 의  $K$ 개의 종속변인에 대한 반복측정된 관측값을  $Y_i^1, Y_i^2, \dots, Y_i^K$ 라고 할 때, 개인  $i$ 에 대한 전체 우도는 아래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Nagin et al., 2018).

$$P(Y_i^1, Y_i^2, \dots, Y_i^K | Age_i) = \sum_{j=1}^J \pi_j \left[ \prod_{k=1}^K P_k(Y_i^k | Age_i, j; \beta_j^k) \right] \quad (1)$$

식 (1)에서 각 개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가지는 우도는 각 집단  $j$ 에 속할 확률인  $\pi_j$ 와 특정 집단  $j$ 에 속한 개인의 결과변인에 대한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계산된다. 이때, GBMTM은 특정 집단  $j$ 에 대하여  $T$  기간에 걸친 동일한 종속변인의 시점 간, 그리고 서로 다른 종속변인  $k$  간 관측값이 상호독립이라고 가정함에 따라, 종속변인  $k$ 의 조건부 확률  $P_k(Y_i^k | Age_i, j; \beta_j^k)$ 는 아래 식 (2)와 같이 매 시점 해당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Nagin et al., 2018).

$$P_k(Y_i^k | Age_i, j; \beta_j^k) = \prod_{t=1}^{T^k} p_k(y^k, j; \beta_j^k) \quad (2)$$

여기서  $\beta_j^k$ 는 집단  $j$ 에서 종속변인  $k$ 의 다항식 모수를 의미하며,  $p_k(\cdot)$ 는 종속변인  $k$ 의 분포를 나타낸다. 즉, 이를 본 연구로 적용해보면,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사회적 관계는 총 4개 변인이므로  $K=4$ 이고, 사회적 관계 변인이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에 따라,  $p_k(\cdot)$ 는 최소값을 1, 최대값을 5로 지정한 특정 구간 내에서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는 절단 정규분포(censored normal distribution)를 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Nagin et al., 2018). 아울러, 6시점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T=6$ 이 되며, 변화패턴의 다항식 차수는 3차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3차항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Nagin et

al.(2018)의 권고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3차항까지의 다항식을 가정하였다.

가장 적합한 집단의 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모형적합도와 집단 내 표본 비율, 해석 가능성, 그리고 사후적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모형적합도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그리고 베이즈 요인(bayes factor) 값을 활용하였다. 먼저 GBMTM에서 AIC<sup>1)</sup>와 BIC<sup>2)</sup>는 그 값이 클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한다(Nagin, 2005). 베이즈 요인의 경우, 사전오즈비 대비 사후오즈비의 비율로 구해지며, 일반적으로  $2\log_e(B_{10})$  값이 6 이상일 때 대안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Jones, Nagin and Roeder(2001)에 따르면,  $2\log_e(B_{10})$ 은  $2(\Delta BIC)$  값에 근사하는 바, 본 연구에서도  $2(\Delta BIC)$  값이 6 이상인 경우 대안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선택된 모형의 사후적합도는 평균사후확률(average posterior probability, AvePP)과 올바른 분류 비율(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 OCC)을 통해 평가하였다(Nagin, 2005). AvePP는 특정 집단으로 분류된 개인이 실제로 해당 집단에 속할 사후확률의 평균값으로, 0.7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OCC<sup>3)</sup>는 무작위 분류 대비 모델이 얼마나 더 정확하게 집단을 분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5 이상이면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음으로, 변화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에 따른 성인기 초입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도덕성과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을 원격 결과변인(distal outcome)으로 설정하였다. GBMTM에서 원격 결과변인의 추정에는 Stata traj 명령어의 outcome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집단  $j$ 에 속할 사후확률(posterior probability of group membership)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회귀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원격 결과변인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개인을 하나의 집단에 고정하는 대신, 해당 집단에 속할 확률을 가중치로 활용함으로써 집단 소속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결과변인 값을 추정한다(Jones & Nagin, 2007; Nagin, Jones & Elmer, 2024). 그러나 outcome 옵션의 경우 집단 간 결과변인의 차이에 대한 사후비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유형별 결과변인의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개인별 집단 소속 사후확률을 활용하여 예측 평균을 산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수행하였다. 전반적인 GBMTM 분석은 Stata/MP2 19.5(StataCorp.,

1)  $AIC = \log(L) - k$  (Akaike, 1974; Nagin, 2005)

2)  $BIC = \log(L) - 0.5k \log(N)$  (Nagin, 2005; Schwarz, 1978)

3)  $OCC_j = \frac{AvePP_j / (1 - AvePP_j)}{\hat{\pi}_j / (1 - \hat{\pi}_j)}$  (Nagin, 2005)

2025)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원격 결과변인 분석에는 SPSS 29.0.2.0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기술통계

분석에 앞서 종속변인인 사회적 관계 네 개 변인의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부모관계는 중1 시점부터 고3 시점까지 매해 평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관계의 경우 고1 시점에 점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매해 평균 점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구관계는 중1에서 중3까지는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의 경우, 중1에서 고2에 이르기까지는 점수가 높아졌으나, 고3에 들어 소폭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기술통계

변인	중1(3차)	중2(4차)	중3(5차)	고1(6차)	고2(7차)	고3(8차)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부모관계	3.586(0.864)	3.579(0.859)	3.570(0.861)	3.563(0.870)	3.489(0.869)	3.498(0.842)
교사관계	3.795(0.738)	3.778(0.758)	3.768(0.767)	3.780(0.722)	3.761(0.736)	3.708(0.745)
친구관계	3.970(0.734)	3.990(0.735)	4.016(0.732)	4.014(0.707)	4.000(0.713)	3.982(0.699)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	4.101(0.679)	4.136(0.681)	4.193(0.689)	4.194(0.654)	4.198(0.660)	4.156(0.671)

### 2.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 수 결정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사회적 관계 변화에 따른 최적의 변화유형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2개 집단부터 시작하여 집단 수를 1개씩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며 모형별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집단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AIC와 BIC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Delta BIC)$  역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집단 수가 많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집단의 집단 내 표본 비율이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집단에서 7집단으로 증가할 경우, 사회적 관계 수준이 중간 정도인 유사한 형태의 중복 집단이 도출되어 집단 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양상을 확인하였다<sup>4)</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

4) 7집단 모형 분석결과, 일부 사회적 관계 지표에서 집단 간 초기치와 변화율이 유사하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부모관계의 경우 집단2와 집단3의 절편은 각각 3.309, 3.167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1차 변화율 또한 0.029, 0.038

적합도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집단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표 4

집단 수에 따른 모형별 적합도

집단	AIC	BIC(N=127,608)	BIC(N=5,317)	2(Δ BIC)	LL
1	-160772.62	-160870.19	-160838.41		-160752.62
2	-146798.11	-146978.61	-146919.82	27837.18	-146761.11
3	-142906.04	-143169.47	-143083.67	7672.30	-142852.04
4	-141172.85	-141519.21	-141406.39	3354.56	-141101.85
5	-139696.46	-140125.76	-139985.92	2840.94	-139608.46
6	-138787.44	-139299.67	-139132.82	1706.20	-138682.44
7	-138195.50	-138790.66	-138596.80	1072.04	-138073.50

표 5

집단 수에 따른 모형별 집단 내 표본 비율

집단	집단 내 표본의 비율(%)						
	1	2	3	4	5	6	7
1	100.0						
2	66.6	33.4					
3	37.4	46.4	16.2				
4	32.9	34.7	15.9	16.5			
5	18.3	13.6	36.4	22.6	9.1		
6	17.4	13.1	35.3	12.0	14.4	7.8	
7	11.9	30.3	13.4	19.4	9.9	8.8	6.3

6집단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적합도 지표인 평균사후확률(average posterior probability, AvePP)과 올바른 분류 비율(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 OCC)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후적합도 확인 결과, AvePP가 6개 집단 모두 0.7 이상, OCC 역시 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6집단 모형의 사후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교사관계에서는 집단2와 집단 3의 절편이 각각 3.550, 3.693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1차 변화율은 -0.106, 0.007로 집단2에서만 유의하였음. 친구관계의 경우, 집단3과 집단4의 절편이 3.973, 4.157로 유사하였으며, 1차 변화율은 각각 0.138, -0.049로 집단3에서만 유의하였음. 또한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에서는 집단1과 집단2의 절편이 3.637과 3.75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1차 변화율 역시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표 6

6개 집단 모형 사후적합도

집단	1	2	3	4	5	6
AvePP	0.926	0.878	0.910	0.885	0.886	0.954
OCC	59.146	48.139	18.583	56.330	46.285	245.477

주. AvePP=average posterior probability, OCC=odds of correct classification

### 3.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 양상

GBMTM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추정된 성장모수는 표 7과 같으며, 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X축은 측정 시점을, Y축은 각 사회적 관계 지표의 평균 점수를 나타낸다. 집단1은 모든 사회적 관계 지표에 있어 6시점 모두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교사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화율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집단에는 17.4%의 학생이 소속되었다. 집단2는 교사관계 및 친구관계 수준은 평균 수준이나, 부모관계가 집단1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은 반면,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으로 명명하였고, 이 집단에는 13.1%의 학생이 속하였다. 집단3은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의 관계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반적 중수준 유지형’으로 명명하였고, 35.3%의 가장 많은 학생 비율을 보였다. 집단4는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관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전반적 상승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2.0%의 학생이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5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모든 관계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전반적 감소형’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학생 중 14.4%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6의 경우 모든 사회적 관계 지표에 있어 6시점에 걸쳐 모두 가장 높은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가장 적은 7.8%의 학생이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별 성장모수

집단	성장모수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	집단 비중(%)
①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	절편	2.974***	3.445***	3.358***	3.700***	17.4
	1차함수	-0.058	-0.245*	-0.038	-0.105	
	2차함수	-0.001	0.068*	0.008	0.035	
	3차함수	0.001	-0.006*	0.000	-0.003	
②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	절편	3.059***	3.687***	3.744***	4.285***	13.1
	1차함수	0.157	-0.007	0.284*	0.366**	
	2차함수	-0.075	0.002	-0.089*	-0.063	
	3차함수	0.007	-0.001	0.008*	0.003	
③ 전반적 중수준 유지형	절편	3.501***	3.833***	3.940***	3.932***	35.3
	1차함수	0.016	-0.244***	-0.120	-0.123	
	2차함수	-0.001	0.081***	0.051*	0.056**	
	3차함수	0.000	-0.008***	-0.005*	-0.006**	
④ 전반적 상승형	절편	3.706***	3.998***	4.263***	4.394***	12.0
	1차함수	0.012	-0.028	0.006	0.008*	
	2차함수	0.025	0.073	0.068	0.075	
	3차함수	-0.003	-0.009*	-0.008	-0.010*	
⑤ 전반적 감소형	절편	4.249***	4.196***	4.281***	4.190***	14.4
	1차함수	0.354**	0.296*	0.430***	0.487***	
	2차함수	-0.140**	-0.137**	-0.163***	-0.156***	
	3차함수	0.012**	0.013**	0.014***	0.013***	
⑥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	절편	4.744***	4.746***	4.792***	4.621***	7.8
	1차함수	0.045	0.292	0.496**	0.549**	
	2차함수	0.028	-0.070	-0.110	-0.120*	
	3차함수	-0.006	0.004	0.006	0.008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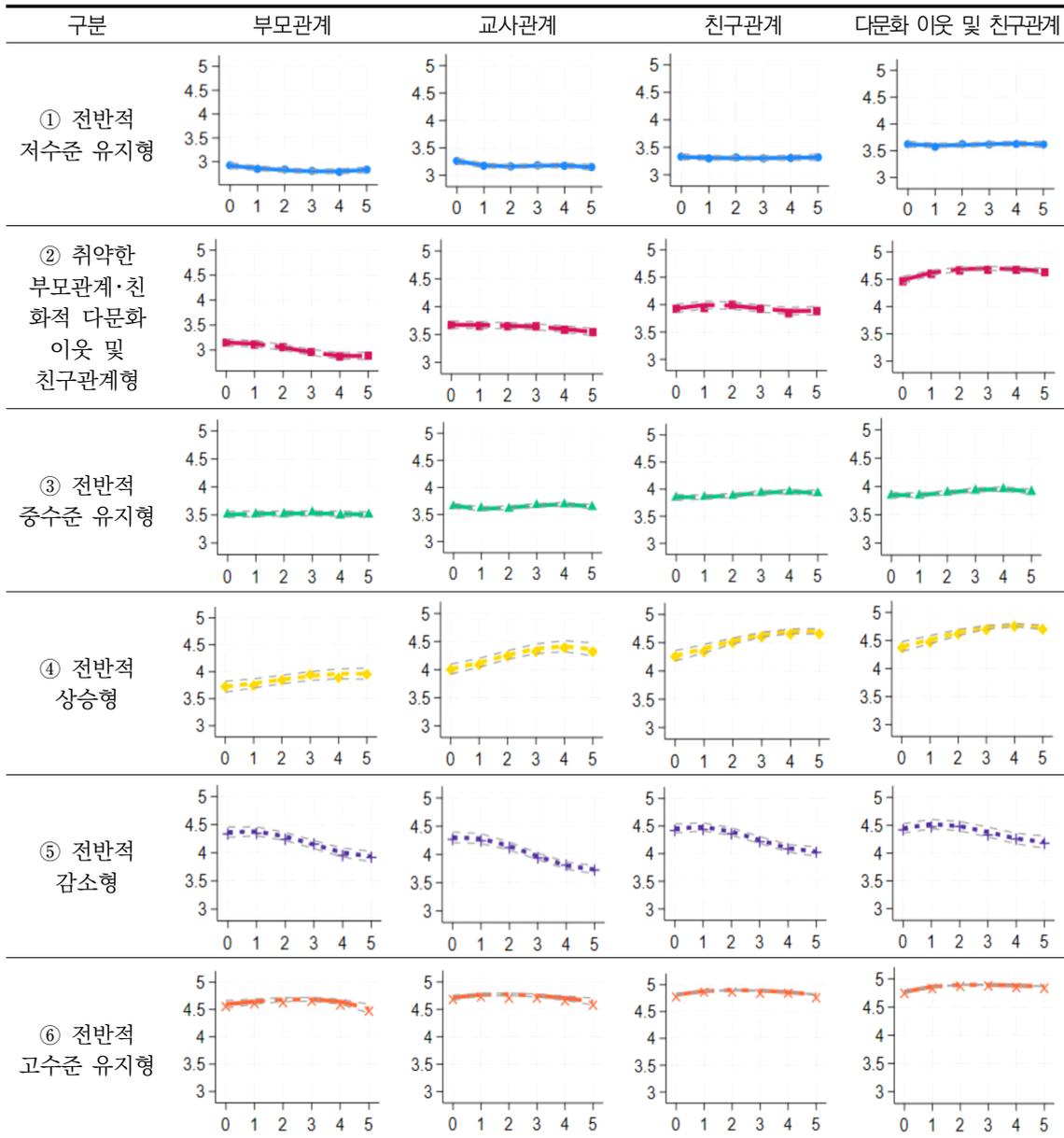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 양상

#### 4.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 분류 영향변인 검증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주요 독립변인이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비교에 대한 해석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모든 시점에 걸쳐 사회적 관계 수준이 가장 낮게 유지된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다른 변화유형의 경우 변화의 방향성은 상이하지만 일부 측정 시점에서는 사회적 관계 지표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나

집단 간 대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통제변인에서는 여학생인 경우 참조집단인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수준이 높은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 전반적 상승형, 전반적 감소형,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전반적 감소형과의 비교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조집단보다는 전반적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개인 요인에서 자아개념은 모든 비교집단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보다는 기타 5개 집단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규칙준수는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 및 전반적 상승형과의 비교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즉, 규칙준수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정신건강은 전반적 중수준 유지형과 전반적 상승형, 전반적 감소형,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과의 비교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정신건강 수준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해당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휴대전화 의존은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과의 비교에서만 부적으로 유의하였고, 이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참조집단인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가정 요인에서 부모의 학업 지원 및 정서 지원은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집단과의 비교에서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즉, 부모가 자신을 학업적, 정서적으로 지원한다고 인식할수록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보다는 비교집단들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서 학교 요인에서 공동체의식 3개 하위영역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의식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 대비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 전반적 감소형,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타인배려는 위 세 집단에 더하여 전반적 상승형 집단에도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이었다. 협력학습은 참조집단 대비 전반적 중수준 유지형과 전반적 감소형,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사열의는 전반적 중수준 유지형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학생이 교사열의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교사 성취압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 분류 영향변인

준거집단		①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									
비교집단	②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	③ 전반적 중수준 유지형		④ 전반적 상승형		⑤ 전반적 감소형		⑥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			
		logit	SE	logit	SE	logit	SE	logit	SE	logit	SE
통 계	성별	1.231***	0.145	0.197	0.116	0.478**	0.156	0.753***	0.172	0.726***	0.191
	월평균 가구소득	0.074	0.110	0.181	0.096	0.102	0.118	0.361**	0.137	0.164	0.160
개 인	자아개념	1.001***	0.189	1.407***	0.163	2.157***	0.203	2.395***	0.240	3.517***	0.294
	규칙준수	0.282*	0.137	-0.025	0.114	0.473**	0.146	-0.017	0.168	-0.081	0.204
	정신건강	0.170	0.100	0.237**	0.086	0.362**	0.107	0.632***	0.127	0.961***	0.163
가 정	휴대전화 의존	-0.182*	0.077	0.111	0.065	0.051	0.082	0.047	0.095	-0.007	0.107
	학업 지원	0.028	0.089	0.513***	0.081	0.452***	0.097	1.093***	0.111	1.131***	0.124
	정서 지원	0.130	0.081	0.582***	0.075	0.678***	0.097	1.453***	0.128	1.685***	0.179
학 교	참여의식	0.549***	0.130	0.164	0.110	0.225	0.141	0.602***	0.167	0.705***	0.199
	타인배려	0.927***	0.139	0.110	0.118	0.523**	0.150	0.674***	0.173	0.987***	0.212
	협력학습	0.087	0.133	0.238*	0.117	0.231	0.144	0.441*	0.172	0.656**	0.207
	교사 성취압력	0.038	0.103	-0.121	0.091	-0.060	0.109	-0.182	0.121	-0.233	0.135
	교사열의	0.738***	0.112	0.182*	0.092	0.620***	0.126	1.397***	0.168	2.029***	0.211

\* $p < .05$ , \*\* $p < .01$ , \*\*\* $p < .001$

## 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과 성인기 결과 간의 관계

GBMTM에서 도출된 변화유형에 따른 성인기 결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덕성과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을 원격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후 각 변화유형에 속할 확률을 반영한 집단별 예측 평균을 추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 중수준 유지형, 고수준 유지형의 경우 성인기의 결과변인에서도 예측 평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은 물질적 부에서 가장 낮은 예측 평균을 보였으나, 도덕성과 시민의식, 자기성장에서는 예측 평균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결과변인에서 전반적 상승형과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에서 비교적 예측 평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물질적 부의 경우 전반적 감소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 평균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별 성인기 결과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F <sup>1)</sup>	사후 검증 <sup>2)</sup>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	취약한 부모 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	전반적 중수준 유지형	전반적 상승형	전반적 감소형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태도 및 행동	도덕성	3.620 (.036)	4.009 (.035)	3.865 (.040)	4.234 (.040)	4.061 (.035)	4.400 (.026)	37631.893***	①<③<② <⑤<④<⑥
	시민의식	3.568 (.038)	3.989 (.036)	3.824 (.040)	4.139 (.032)	4.016 (.030)	4.297 (.022)	35441.521***	①<③<② <⑤<④<⑥
지향 목 표 의 식	물질적 부	3.239 (.009)	3.187 (.023)	3.303 (.015)	3.314 (.017)	3.383 (.019)	3.427 (.009)	18789.311***	②<①<③ <④<⑤<⑥
	명예	3.411 (.026)	3.582 (.023)	3.599 (.026)	3.803 (.026)	3.717 (.021)	3.900 (.014)	35191.149***	①<②<③ <⑤<④<⑥
	사회적 공헌	2.889 (.033)	3.112 (.029)	3.132 (.033)	3.396 (.035)	3.275 (.027)	3.550 (.022)	36247.831***	①<②<③ <⑤<④<⑥
	인간 관계	3.260 (.042)	3.553 (.034)	3.561 (.039)	3.897 (.046)	3.684 (.034)	4.041 (.026)	34185.063***	①<②<③ <⑤<④<⑥
	가정 화목	3.256 (.054)	3.382 (.072)	3.663 (.060)	3.966 (.054)	3.921 (.049)	4.226 (.028)	27484.918***	①<②<③ <⑤<④<⑥
	자기 성장	3.360 (.030)	3.692 (.032)	3.563 (.036)	3.905 (.036)	3.769 (.033)	4.067 (.023)	38837.450***	①<③<② <⑤<④<⑥

\*\*\* p<.001

1) 집단 간 자유도(df)=5, 집단 내 자유도(df)=5,311

2) 사후검증 시, 모든 결과변인이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지 않아 Games-Howell 방법을 적용하였음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인관계 상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통계 조사 결과(여성 가족부, 2023)에 문제의식을 착안하여, 사회적 관계의 세분화된 변화유형을 탐색하고 사회적 관계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KELS2013 3~8차년도 및 9차년도 자료에 GBMTM을 활용하였으며, 중1에서 고3까지 사회적 관계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변화유형 분류에 미치는 청소년 관련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의 영향력과 더불어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에 따른 성인기 초입 결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1에서 고3까지 사회적 관계 변화에 따른 변화유형은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17.4%),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13.1%), 전반적 중수준 유지형(35.3%), 전반적 상승형(12.0%), 전반적 감소형(14.4%),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7.8%)의 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은 사회적 관계의 전체적인 수준에 따라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특정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높은 독특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김나영, 손윤희, 2023; 조은영, 양명희, 2022)와 맥락을 함께 한다. 특히 부모관계는 취약하지만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가 매우 높은 유형이 도출된 결과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환경이 확대되는 맥락에서 가정 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계망 속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 발달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서로 다른 체계와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생태체계적 관점(Bronfenbrenner, 1979)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가족 사회자본이 취약한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자본이 보호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한 McPherson et al.(2013)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단일한 맥락이 아닌 복합적 관계 맥락의 상호보완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의 관계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 밖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맞춤형 관계 지원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단일 시점에서 유형화한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연속적인 6개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동태적 패턴을 도출하였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집단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진적으로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집단이 존재함을 함의하는 결과로, 사회적 관계 발달을 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종단적 변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적응, 성취,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역시 중요한 발달적 특성으로 전제하고(박성준, 김주일, 2015),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을 분석한 결과, 먼저 개인 요인에서는 자아개념과 규칙준수, 정신건강이 높을수록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수준이 높은 기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심리적 안녕감이 대인관계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규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신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자아개념, 규칙준수, 정신건강이 사회적 관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진희, 김준엽, 2022; 변해원, 2017; 이문수, 박희진, 2021)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 이해와 감정조절, 학교 안팎의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을 다루는 교육 및 상담 활동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휴대전화 의존의 경우 대부분의 비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관계 수준은 유사하지만 다문화 이웃 및 친구 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과의 비교

에서만 참조집단인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사회적 관계의 확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한 김경숙(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및 디지털기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대면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는 휴대전화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정 요인에서는 부모의 학업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이 부모관계 수준이 유사한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을 제외하고 모든 비교에서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수준이 높은 다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학업과 정서 등 일관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는 것이 청소년의 안정적인 관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김진희, 김준엽, 2021; 이미영, 202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지지 경험이 누적될 수 있도록 부모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 및 학업적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려는 노력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발달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요인에서는 공동체의식과 교사열의가 대부분의 비교에서 전반적 저수준 유지형보다는 사회적 관계 수준이 더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동체의식과 교사열의가 높을수록 교사관계 및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지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진희, 김준엽, 2022; 이의빈, 2022)와 유사한 결과이다. KELS2013 자료에서 수집하는 공동체의식은 학급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또래와의 협력적 학습 등 학교 내에서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동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이와 같은 요소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타인과의 관계적 경험을 폭넓게 축적하여 사회적 관계 수준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참여와 배려,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체 중심의 활동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발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사열의의 경우 학생이 인식하는 교사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 전문성 등을 포함하는 문항으로,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청소년의 사회적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eng(2021)은 교사열의가 학생으로 하여금 정서적 안녕감과 동기, 소속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결과(social consequences)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충분한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긍정적 정서와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

할 수 있도록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에 따른 성인기 초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저수준, 중수준, 고수준 유지형으로 갈수록 도덕성과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관계와 교사관계, 교우관계,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가 원만할수록 도덕성,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다수의 선행연구(김나영, 황혜영, 2022; 유계환, 김대명, 2023; 이윤희, 2021; 함은혜, 백선희, 2016)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에 타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수준이 성인기 초입의 태도와 행동, 가치 형성에까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생애목표의식의 하위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Kasser와 Ryan(1996)은 생애목표의식을 내재적 목표(intrinsic goals)와 외재적 목표(extrinsic goals)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며, 이중 내재적 목표는 타인의 평가나 외적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에게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로서 성장, 소속감, 공동체에 대한 기여, 신체건강 등을 포함한다. 반면 외재적 목표는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 명예, 외모, 인기 등과 같이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 보상 등에 조건적으로 의존하는 목표를 의미한다(Kasser & Ryan, 1996). 이러한 구분에 비추어 볼 때,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에서 물질적 부에 대한 생애목표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도덕성과 시민의식, 그리고 자기성장에 대한 생애목표의식은 중간 수준의 예측 평균을 보인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가정 내 부모관계가 다소 취약하더라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타인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사회를 함께 고려하는 가치관과 더불어 자기계발과 잠재력 개발을 보다 중시하는 내재적 목표 지향이 강화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아울러, 전반적 고수준 유지형과 전반적 상승형은 대부분의 결과변인에서 예측 평균이 비교적 높게 추정되었으나, 물질적 부에서는 전반적 감소형의 예측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경험을 한 청소년 집단일수록 성인기 초입에서 물질적 성공과 같은 외재적 목표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하여 하여진 등(2025)의 연구에서 부모님의 성취압력과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내재적 목표집단보다는 외재적 목표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부모의 과도한 성취 기대나 권위주의적 양육은 정서적 지지나 애정이 부족한 부모-자녀관계와 연결되어 관계적,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재적 성취를 보다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함께한다. 따라서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는 정책과 교육적 개입은 단기적인 관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시민적·도덕적 책임감과 더불어 삶의 목표에 대한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다방면적 속성을 고려하여 부모, 교사, 친구,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를 동시에 포함한 변화유형을 분류하였다. 특히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관련 기존 연구가 대부분 횡단자료를 활용해 특정 시점에서의 사회적 관계 유형만을 도출한 것과 달리 연속적인 6시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의 변화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준이 서로 다른 집단뿐 아니라 시간에 따라 관계 수준이 상승하거나 감소하는 집단, 그리고 특정 관계가 두드러지게 높은 집단 등 동태적이고 이질적인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유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개인, 가정, 학교 요인을 투입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 변화유형을 성인기 초입의 도덕성, 시민의식, 생애목표의식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수준이 장기적인 태도, 행동, 가치 지향에까지 누적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3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6개 시점의 사회적 관계 문항에 모두 응답한 사례만을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조사 기간 중 중도 이탈한 학생이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수준이 낮거나 취약한 특성을 지닌 집단의 비중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적 관계 지표는 KELS2013 자료에서 제공하는 부모, 교사, 또래, 다문화 이웃 및 친구 등 주로 오프라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공간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온라인 대인관계 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관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SNS나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되는 관계 특성을 함께 반영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 취약한 부모관계·친화적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형과 같이 다문화 이웃 및 친구관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을 도출하였으나, KELS2013 3차년도 자료의 경우 다문화 관련 변인이 다문화수용성의 일부 하위요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다문화 경험 및 인식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폭넓은 다문화 관련 변인을 고려한 후속 분석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경숙 (2017).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생활적응 관계에서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3), 945-971. doi:10.22251/jlcci.2017.17.23.945
- 김경준, 이윤석 (2021). 청소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44(3), 101-129. doi:10.31693/KJPS.2021.09.44.3.101
- 김광웅, 문수경 (2005). 부모-청소년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연구: Bronfenbrenner의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3(1), 71-84.
- 김나영, 손윤희 (2023).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성 발달 유형 분석: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4(3), 393-420. doi:10.15753/aje.2023.9.24.3.393
- 김나영, 황혜영 (2022). 고등학교 3학년의 생애목표의식 잠재집단 유형 및 영향요인 탐색: 잠재 프로파일분석과 랜덤 포레스트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3(4), 729-754. doi:10.15753/aje.2022.12.23.4.729
- 김동진, 김태한 (2018). 근접맥락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50(3), 23-47. doi:10.35557/trce.50.3.201809.002
- 김진희, 김준엽 (2021). 랜덤 포레스트 회귀를 이용한 중·고등학교 1학년의 교우관계 영향요인 탐색. **교육방법연구**, 33(3), 589-612. doi:10.17927/tkjems.2021.33.3.589
- 김진희, 김준엽 (2022). 랜덤 포레스트 회귀 기반의 교사-학생관계 영향요인 탐색과 SHAP을 활용한 해석. **교육평가연구**, 35(3), 409-437. doi:10.31158/JEEV.2022.35.3.409
- 김태한 (2017).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이타적 목표의식에 미치는 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7(1), 31-53. doi:10.32465/ksocio.2017.27.1.002
- 민미희 (2025). 중학생의 학교폭력피해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우울과 모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열린부모교육연구**, 17(4), 149-165. doi:10.36431/JPE.17.4.7
- 박성준, 김주일 (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7(3), 263-288.
- 박수경, 양심영 (2017). 초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친사회적 행동, 공감능력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142-152. doi:10.5392/JKCA.2017.17.06.142
- 변해원 (2017). 인공지능영향을 이용한 청소년의 또래 애착 영향 요인 탐색.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0), 209-214. doi:10.15207/JKCS.2017.8.10.209
- 손봉호, 조영달, 이승중, 김해성 (1999). 한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윤리: 규범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탐색. **시민교육연구**, 28(1), 1-44.

- 여성가족부 (2023). **2022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 「**2025 청소년 통계**」 발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5.27.)
- 유계환, 김대명 (202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교사와의 관계가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학교급과 성별의 조절효과. **사고개발**, 19(1), 65-92. doi:10.51636/JOTD.2023.04.19.1.65
- 이문수, 박희진 (2021). 초기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및 공동체 의식의 유형분류 및 영향 요인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4(4), 111-140. doi:10.14328/MES.2021.12.31.111
- 이미영 (2022).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또래 및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70, 69-98. doi:10.17854/ffyc.2022.04.70.69
- 이윤희 (2021). 교사 및 부모의 역할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인성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교육학 연구**, 34(2), 81-104. doi:10.35283/erft.2021.34.2.81
- 이의빈 (2022).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지향 삶의 목표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4), 263-292. doi:10.21509/KJYS.2022.04.29.4.263
- 장아영, 김순규, 이명홍, 박신애 (2025).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 생각의 관계: 사회자본(가족, 학교, 지역사회)을 조절효과로. **한국청소년연구**, 36(3), 143-164. doi:10.14816/sky.2025.36.3.143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현희, 장은애 (2021). 초기 청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 잠재프로파일 전이양상과 영향요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32(4), 165-194. doi:10.14816/sky.2021.32.4.165
- 조은영, 양명희 (2022).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프로파일 분석연구. **청소년학연구**, 29(9), 209-233. doi:10.21509/KJYS.2022.09.29.9.209
- 최연희, 구민정, 최문지, 김영미 (2018). 다수준 분석을 이용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의료산업학회지**, 12(2), 75-87. doi:10.12811/kshsm.2018.12.2.075
- 하여진 (2025).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목표 종단프로파일과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7(1), 29-50. doi:10.19034/KAYW.2025.27.1.02
- 함은혜, 백선희 (2016). 고등학생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6(5), 761-783.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doi:10.1109/TAC.1974.1100705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oi:10.4159/9780674028845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793-828). Hoboken, Wiley. doi:10.1002/9780470147658.chpsy0114
- Byrd, C. M., & Ahn, L. H. (2020). Profiles of ethnic-racial socialization from family, school, neighborhood, and the Internet: Relations to adolescent outcom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8*(6), 1942-1963. doi:10.1002/jcop.22393
- Hernández, M. M., Safa, M. D., Kornienko, O., Rogers, A. A., & Ha, T. (2023). A person-centered analysis of adolescent multicultural socialization niches and academic function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2*, 2261-2284. doi:10.1007/s10964-023-01828-0
- Jones, B. L., & Nagin, D. S. (2007). Advances in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d an SAS procedure for estimating the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5*(4), 542-571. doi:10.1177/0049124106292364
- Jones, B. L., & Nagin, D. S. (2012). *A Stata plugin for estimat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s*. Retrieved November 15, 2025, from [https://ssrc.indiana.edu/doc/wimdocs/2013-03-29\\_nagin\\_trajectory\\_stata-plugin-info.pdf](https://ssrc.indiana.edu/doc/wimdocs/2013-03-29_nagin_trajectory_stata-plugin-info.pdf)
-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 (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9*(3), 374-393. doi:10.1177/0049124101029003005
- Karataş, S., Rubini, M., Prati, F., Schwartz, S. J., & Crocetti, E. (2023). Intergroup contact in multiple adolescents' contexts: The intergroup contact interactions scale (ICIS). *Frontiers in Psychology, 13*, 1066146. doi:10.3389/fpsyg.2022.1066146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doi:10.1177/0146167296223006
- McPherson, K. E., Kerr, S., Morgan, A., McGee, E., Cheater, F. M., McLean, J., & Egan, J. (2013). The association between family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health risk behaviours in young people, an integrative review. *BMC Public Health, 13*(1), 971. doi:10.1186/1471-2458-13-97
- Nagin, D. 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doi:10.4159/9780674041318
- Nagin, D. S., Jones, B. L., & Elmer, J. (2024). Recent advances in group-based

- trajectory modeling for clin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0, 285-305. doi:10.1146/annurev-clinpsy-081122-012416
- Nagin, D. S., Jones, B. L., Passos, V. L., & Tremblay, R. E. (2018).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27(7), 2015-2023. doi:10.1177/0962280216673085
- Peng, C. (2021). A conceptual review of teacher enthusiasm and students' success and engagement in Chinese EFL Classes. *Frontiers in Psychology*, 12, 742970. doi:10.3389/fpsyg.2021.742970
- Schwarz, G. E.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doi:10.1214/aos/1176344136
- StataCorp. (2025). *Stata statistical software: Release 19*. College Station, StataCorp LLC.
- van Buuren, S., & Groothuis-Oudshoorn, K. (2011). mice: Multivariate imputation by chained equations in 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5(3), 1-67. doi:10.18637/jss.v045.i03
- Vonneilich, N. (2022). Social relations, social capital, and social networks: A conceptual classification. In A. Klarner, M. Gamper, S. Keim-Klarner, I. Moor, H. von der Lippe & N. Vonneilich (Eds.), *Social networks and health inequalities*. Springer, Cham. doi:10.1007/978-3-030-97722-1\_2

## ABSTRACT

### Analysis of change patterns in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s: An application of the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Jang, Eunah\*\* · Chung, Hyewon\*\*\*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heterogeneous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s with parents, teachers, peers, and multicultural neighbors and friends. Using waves 3-8 (from Grade 7 to Grade 12) of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 $n=5,317$ ), a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was applied. The study also identified personal, family, and school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d their trajectory group membership. To examine differences in early adulthood outcomes trajectory groups, morality, civic consciousness, and life goal orientation measured in wave 9 were specified as distal outcom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ix trajectories were identified: overall low-level maintenance (17.4%), parent-vulnerable, multicultural-oriented (13.1%), overall medium-level maintenance (35.3%), overall increasing (12.0%), overall decreasing (14.4%), and overall high-level maintenance (7.8%). Second, gender, self-concept, sense of community, mental health, parental support, and teacher enthusiasm significantly influenced trajectory membership. Third, distal outcomes generally aligned with low-, medium-, and high-level trajectories, whereas the parent-vulnerable, multicultural-oriented group showed relatively higher civic and moral values. Based on these findings,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fostering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 development we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 social relationships,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

\* This paper is based on the poster presented at the 2025 Winter Conference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hw7@cnu.ac.kr